



# 신심드높이 승리의 표대를 향하여!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전진련속의 영웅사사를 창조하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위대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승리의 위대한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선군혁명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바로 그것이 지난해의 성스러운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가야 할 위대한 앞날을 내다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실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신심과 탁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들의 산체통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만을 공경하고 그의 령도를 일관단심으로 받드는 길에 강성대국승리와 민족번영의 번영도 있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으로 확신한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이다.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는 인민만이, 자기의 힘을 믿는 인민만이 험난한 혁명의 길을 뜻뜻이 걸어갈수 있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수 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 이는 역경을 승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무기이다.

인민이 지닌 신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하루이튿에 이루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떻게 되어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바뀌고 맑고 푸른 하늘아래 소리가 울려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리상실현의 시대, 사회주의조선의 화려한 번영기가 열리고있는것인가를 실지 체현한 위대한 령도의

증거자이다.

위대한 리상을 앞세우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릴 의지로 신들메를 조이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10여년전 령도의 땅, 만경대에서 휘몰아친 눈보라가 새차게 일어번진다.

휘—휘—

하늘을 매우며 한치알도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억수로 눈이 쏟아져내리던 새해의 첫날 아침 눈길에 첫 자욱을 찍으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내리고내리는 눈은 학원미당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도 쌓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이윽도록 서계시었다.

폭풍사나운 피바다만리,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혁명의 먼길을 더듬어 보시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시었다.

이윽고 《만경대의 눈보라...》라고 혼자말씀으로 나직이 외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팎에는 못내 의미심장한 빛이 어려있었다.

만경대의 눈보라!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을 만장약해주시는 참으로 사연깊은 혁명의 눈보라, 투쟁의 눈보라가 아니던가.

바로 이 만경대의 눈보라를 헤쳐 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10대의 의지된 나이에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 용약 나서시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눈보라만리길을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구름을 산산조각내고 민족제생의 밝은 길을 열어놓은

조국해방과 잇닿아있는 길이었었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령도의 길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하신 모습.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위인의 그 날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며 우리의 천만군민은 이 땅우에 거어 강성대국의 새봄을 안아오실 위대한 신념의 최강자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보았다.

그 신념, 그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준엄했던 고난의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혁명천만리를 우리 어찌 순간도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도 잊지 못하는 강계의 눈보라! 우리는 절대로 남을 쳐다볼 필요 없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로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 ...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어 자강도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선군혁명승리의 신념이고 투쟁과 전진의 불길이었으니 어찌 자강명에서 불굴의 정신이 창조되지 않을수 있었으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눈보라는 멈출 줄 모르는 계속혁명의 상징, 지칠 줄 모르는 투지의 상징, 돌진 또 돌진하는 전진의 기상이었다.

351고지, 대덕산,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

대기제작기지들이며 인민생활 향상기지들, 기쁨의 협동농장... 조국의 운명, 민족대번영의 리상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이 나

라 방향곡목을 종횡무진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눈보라 강행군의 나날들이 천만의 가슴을 천다.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노예로 사느냐 하는 생사기로의 나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결사의 신념과 의지로 헤쳐가신 선군장정.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킨 조국수호의 결사전이었으며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민족대번영의 길이었다.

비밀한 선군명장의 담력과 배정으로 매일, 매 시각 난관들과의 전투에 서서어 전선과 공장, 일터를 원주격멸의 투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 최후의 승리의 기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에만도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건실장들, 공장과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새해벽두에도 삼복철에도 깊은 밤에도 장교 또 장교는 선군혁명의 현지도로정에 한해는 여러차례나 찾으신 곳도 없고 위엄천만한 명령을 무수히 내으시며 찾으신 산세협한 북방의 발전조건설정, 광산도 있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볼수록 우리의 가슴에 천하제일명장의 힘있는 선언이 메아리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나의 빨치산강행군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입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다. 인민들이 잘살고 기뻐하면 나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

반만년민족사가 그처럼 바라던 강성대국, 그 어떤 침략의 무리도 법집합수 없게 우리 조국을 선군혁명성세로 다져주신 공적만으로도 이제 편히 쉬어도 되지만 필승의 신심과 탁관에 넘쳐서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는 선군명장의 발걸음을 따라 강대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적으로 전하고있는것인가.

정령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은 천만의 심장에 신념의 불을 달아주시고 백철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적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신념의 최강자이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버이수령님의 리상 실현의 기상으로 온 나라를 뚫어내리듯 한 선군조선의 격동적인 현실.

그렇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눈부신 기적은 령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신념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신념과 의지, 배정으로 최첨단과정을 과감히 펴리는 길이 곧 우리의 승리와 행복의 길이이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제철을 남고 떨쳐내서면 천리로 지척이고 님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이다.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인민의 앞길에는 위대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머지않아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가에 터져오는 강성대국승리의 불보라를, 조국이며, 인민이며, 민족사적인승리의 날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더욱 앞으로!

로 현 찬

#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어느해 1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시찰하시었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지휘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설을 들어보시었다.

이 부대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스러운 부대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무적의 전투대로로 자라나 이 부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리의 애국적신념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운 공로가 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권위

부대의 영예를 계속 높이 떨쳐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 진행정형을 료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교양에 필요한 각종 수단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군인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면서 정치사업교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모든 군인들을 투철한 사상과 신념이 만장약된 불굴의 투사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부대의 장병들은 그이께서 바라시는데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게 준비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었다.

# 백두산혁명장군으로 키우시던 나날에

## 승리의 비결은 훈련

총포소리가 나지 않는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군인이며 훈련과제를 어김없이 집적적으로 수행하는 부대가 일 잘하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군인들에게 어떤 승수로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줄과 용맹을 안겨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주제 97 (2008)년 3월 어느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훈련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어떤 훈련을 하든 훈련하는 판점을 가지고 모든 훈련을 실천과 같이 진행할 때 전군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훈련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적들의 싸움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준 뜻깊은 가르침이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까히라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스니 무바라크각하

나는 최근 귀국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는 폭탄테러사건으로 무고한 주민들속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사망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령도밑에 사회적안정과 단합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만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1월 4일 평양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현지지도 기념보고회와 특기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5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발전소 종업원들, 건설자들, 토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토산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일광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99

(2010)년 1월 완공단계에 들어선 레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도차체의 힘으로 방대한 건설공사를 해낸것을 높이 평가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발전소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하여 조업단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레성강청년 3, 4, 5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완공을 앞당김으로써 레성강을 종합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 합창을 재창하신 사연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총신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자기의 최고사령관과 떨리지 아니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던 한 인민군부대병사들의 모습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부합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주제 88 (1999)년 초 여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할 때의 일이다.

그날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촬영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감격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합창을 한번 해보라고 이리시었다.

군인들은 노래를 합창하였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팎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군인들의 씩씩한 합창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제일먼저 크게 박수를 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합창을 재창하시었다.

이윽고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가 힘있게 울려져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군인들의 합창을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이께서는 다시금 크게 박수를 쳐주시며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군인들이 몸도 굽지않고 대담히 부른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를 떠나가신 후 군인들의 가슴속에는 의문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 합창을 재창하신것은 무엇때문이었나, 그이의 현지시찰을 동행하면 서로 아직 이 일을 체할해보지 못한 일군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후날 알게 된 일이지만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합창을 재창하시며 시간을 지체하신것은 군인들의 모습에서 석멸의 정을 느끼시였기때문이었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어둠속에서 귀중한 시간을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

생애에는 군령도자들이 많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이 병사들을 천자처럼 생각하시며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는 위인이 언제 있었던가.

선군혁명명도의 나날에 태어난 이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사이에서 어떤 현연적관계를 전하는 일화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동철

# 민족문화유산에 깃든 숭고한 뜻

어느 한 산기슭에 이르시어 여기에 고려시기의 귀중한 유적이 있다는데 어서 가보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었다.

이윽고 길가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실례를 로해하고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길가의 부처들은 우리 나라 중세기의 조형예술을 연구하는데 가치가 있고 청소년학생들에게 대한 계교교양에도 좋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길간들을 일일이 다 돌리시며 건국양식과 단청의 특징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해라시

#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석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한목숨마져 결사옹위할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불멸의 업적을 모든 당원들과 관부들이 심장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김정숙동지의 투쟁업적을 수록한 도서들과 당보에 실리는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귀감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독보와 해설모임 등을 주별, 월별로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일군들이 들끓는 작업현장에 내려가 화선식정지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 있다.

얼마전 새해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막장에 내려간 한 일당원들과 관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만들어 나갈 불같은 결의밑에 막장마다 어떤 현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로동동원련 연진행



산골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바쳐오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창성석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적음

# 송기떡에 어린 뜨거운 동지애

편찮다고, 빨리 송기를 벗겨야 오늘 유격대원들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손을 제촉하시었다.

일행은 힘들게 송기를 벗겨가지고 내려와서 떡을 빻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투장에서 돌아와 떡을 맛보게 된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송기떡을 맛있게 먹으며 기뻐하는 그들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떡까지 다 가져다 나누어주시었다.

그날 저녁 송기죽물 요기를 하고 자리에 누우신 김정숙동지께 내대원은 시장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동무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니 배고픈 생각이 없어졌다고, 동무들이 그처럼 좋아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지 않고도 견딜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내대원은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눈물을 적시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 송기떡에 어린 뜨거운 동지애

편찮다고, 빨리 송기를 벗겨야 오늘 유격대원들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손을 제촉하시었다.

일행은 힘들게 송기를 벗겨가지고 내려와서 떡을 빻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투장에서 돌아와 떡을 맛보게 된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송기떡을 맛있게 먹으며 기뻐하는 그들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떡까지 다 가져다 나누어주시었다.

그날 저녁 송기죽물 요기를 하고 자리에 누우신 김정숙동지께 내대원은 시장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동무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니 배고픈 생각이 없어졌다고, 동무들이 그처럼 좋아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지 않고도 견딜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내대원은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눈물을 적시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 선구자의 신념과 본때, 실천력으로 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간다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 위대한 령도의 손길따라 승리의 한길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또다시 격동적인 편지를 보낸 북방의 철의 기차 김철의 로동계급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리고 있다.

주체의 강철기둥을 더 굳건히 세울 김철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가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선언한 전철의 언덕에서 더 높은 승리의 평야를 향해 파란불의 전진군을 이어가는 우리의 미더운 강철전사들, 지금 이들도 두는 깃털하고 세련된 이들도 김철을 비약의 도약대우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철전사들이 열리고있는 지금 김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지난해 12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고조의 전철에서 질풍같이 내달려온 김철의 로동계급을 높이 내세워주시며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다그치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을뿐 아니라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이들

의 성과를 거듭거듭 평가해 주시었다.

주체이코보면 련합기업소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한량없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신 만아들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을뿐인데 그렇듯 값높은 평가를 주시었으니 김철로동계급은 경에 하는 장군님을 우리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또 흘리었다.

진정 글자의 대아금기지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은 이곳 로동계급을 대고조의 신봉에 내세워주시고 결승결승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돌이켜볼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혁명적대고조의 한해가 저물어가던 주제 98 (2009)년 12월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김철의 로동계급을 찾으셨던가.

김철이 일어서야 온 나라가 일어서고 김철이 소리치며 앞장서야 내달려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더욱 기운차게 내달릴 수 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절절한 애국의 호소를 안으시고 김철을 찾으시었다. 강주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철강제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

그날 주체철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김철로동계급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며 본에 넘치는 치하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이 신심과 용기에 넘쳐 보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기로 적극 고무해주시었다.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푸는데는 다음 해는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김철로동계급이 대고조의 신봉에 서라고 열렬히 호소하실 때 이들은 모든 진정 풀어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러며 김철로동계급은 이런 마음속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경에 하는 장군님, 우리 김철사람들이 꼭 일을 치겠습니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다지고자한 김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또다시 무섭게 폭발하였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정초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격동적인 편지는 그대로 김철로동계급의 신념이

고 지어졌다.

실전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인 철의 도시를 밝히며 세차게 타올랐다. 격전의 나날속에 앞을 가로막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나갔고 매년이 없이 들이닥친 강주위에서도 용광로와 가열로, 전로들은 일시에 세찬 불길을 내뿜었다.

주체철용광로직장에서 하루빨리 우리 식의 제철법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활활 타번졌으며 대고조적기술혁신운동이 힘차게 벌어졌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자나깨나 전진길에 계시는 아버지를 그리며, 그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김철의 로동계급은 생산조건이 불리한 겨울철에도 말려진 제철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사나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찾아들던 지난해 3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철강제증산의 동물이 세차게 울리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으며 주체철생산체제 확립과 철강제생산의 정상화,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진정 날에 날마다 더해만지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김철의 로동계급은 지난해에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새 강증산에서 단번치기로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열간압연직장 3호가열로개건공사와 같은 통이 큰 일판을 벌리고 힘차게 내밀어올수 있었다.

주체철용광로에서 주체의 쇠물이 장쾌하게 쏟아져나오고 짧은 시간에 새로운 제철공정이 확립된 사변적인 성과도, 전반적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져 더 높이 비약할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우에 확고히 울려서 온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렇다. 김철이 나라의 생명선이라면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손길은 김철의 생명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강성대국의 최후 승리를 위해 질풍처럼 내달려온 김철의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도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철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를 계속 빛내이며 승리만을 펼쳐갈것이다.

### 주체화, 현대화의 불길

보다 큰 신심과 락 판에 넘쳐 세대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맹세다 진대로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대고조진공속도를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우리 나라 연료와 원료에 의한 철생산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더 많은 철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든든히 꾸러진 주체철 생산기지에 의거하여 선철과 강철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반응 주체철생산규모를 확대하고 CNC화목표를 앞당겨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화선식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주체철생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현대화, CNC화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의 기술개선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생산활성화의 확고한 지름길을 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도 대중을 발동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당력과 배짱을 간직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할 불타는 열정과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체철용광로직장에서 이미 마련된 주체철생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생산정상화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모든 설비들을 더욱 완벽하게 정비보강하고 로의 특성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

고있다. 이와 함께 로의 수명을 늘여 더 많은 주체철을 생산하기 위한 즐거운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강철1직장에서 새롭게 확립해놓은 주체철생산공정이 더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면서 쇠물의 생산량과 질을 더욱 높이고있다. 또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미 꾸러진 생산공정들을 더욱 완벽히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열간압연직장 3호가열로개건공사에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전두원들이 확고한 신심에 넘쳐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이들은 여러개소에서 마감용접작업을 붙이 번쩍 내게 다그치면서 현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각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한가지의 생산의 가치있는 합리화안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찾아내어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려는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는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붉은기둥이 세차게 나뭇가지와 새해공동사실에 제시된 전투적 사업관철로 부르는 격동적인 글발들이 나뭇가지는 여기는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주체철용광로직장 생산현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주체의 쇠물이 장쾌하게 쏟아져나올 또 한차례 출현의 시각이 가까와오고 있다.

주체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갈 김철로동계급의 역센 신념의 기둥인양 우뚝 치솟은 주체철용광로가 뜨겁게 숨을

현지 보도

### 용해장의 불노을

#### 주체철용광로직장에서

위고 우리의 원로, 연료를 가득 실은 공급기둥이 뚝뚝뚝 동을 울리며 연료 오르내린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은 공업의 왕이며 국방력과 경제력을 담보해주는 귀중한 재부입니다.》

지금 로앞에서는 로제1

작업반원들이 쇠물길정리를 붙이 번쩍내게 다그치고있다. 모두의 열골마다에는 오늘 계획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이 비껴있다.

이제 얼마 안있어 출선이 시작되게 됩니다. 로장 한영덕동무가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옆에 있는 조종실에 눈길을 보낸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조종실에 들어서니 여러 컴퓨터화면들을 통해 로의 상태가 한눈에 안겨온다. 컴퓨터앞에 마주앉은 조종공이 원로, 연료의 투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감시, 조종하고있다.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체철생산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동무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맹세다 진대로 울려서 온 철강제증산체제를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젖히겠습니다.》

련합기업소 설계실 설계원 황성길동무는 주체철생산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는 주체철용광로를 건설하던 시기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모험이 마다에 언제나 남던지 어깨를 들이밀곤 하였다. 그는 전동기, 감속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과 부족되는 자재

### 철의 기지가 사랑하는 사람들

####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를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해결함으로써 주체철용광로건설을 앞당기는 배만 뭉 단단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체철시험생산과정에도 로운공과 관련한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앞장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통기, 감속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과 부족되는 자재

를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해결함으로써 주체철용광로건설을 앞당기는 배만 뭉 단단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체철시험생산과정에도 로운공과 관련한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앞장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통기, 감속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과 부족되는 자재



### 주체의 한길따라 질풍같이

우리 주체철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해의 총공격전에 파급히 떨쳐나섰다.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올해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변함없는 주체의 한길이다.

노래 《승리의 길》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폭풍이 사에도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 백두의 붉은기둥이 끝까지 가야 할 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한몸이 그대로 주체철용광로의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따라 역세게 달려나갔다.

우리는 자기 단위의 생산은 자기가 목숨걸고 책임진다는 결사의 자세로 울려진 투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열기로 수놓아가겠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어야 이미 마련된 주체철생산체제를 계속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주체철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갔다. 이와 함께 대중

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설비들을 완벽하게 정비보강하고 로의 특성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당력과 배짱이 있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마련된 고귀한 경험도 있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계속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개척자, 전초병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나갔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주체철용광로직장 직장장 전성일

### 첫 전투부러 높은 실적 기록

철의 기지에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김철을 나라의 생명선으로 내세워주시고 결승결승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철강제증산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새해전투를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최근 며칠동안에도 철강제 생산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현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을 안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해내는 결사관철의 루사들입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가 생산자대중속에 공동사실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새해벽두부터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김철이 풀어야 온 나라가 살고 김철이 소리치며 앞장에서 내달려야 온 나라가 맞추어나간다는것을 열렬히 호소하

### 첫 전투부러 높은 실적 기록

면서 새로운 위훈장조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 부러 중심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대담한 작전과 치밀함도 완벽한 조직사업,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전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공동사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표하기 위해 펼쳐나선 련합기업소 전두원들의 불같은 열의로 하여 주체철용광로에서는 많은 쇠물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타는 철석의 신념을 지닌 강철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에 새 강증산에서 단번치기로 성공하던 기세, 그 기백으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배공정간 편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산소전로들과 조리기들의 높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앞선 용해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2호용광로 주전기작업반원들과 남비수리작업반원들은 파급한 공격전

### 성실한 노력가

주체철생산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성실한 노력가들중에는 5월28일금속연구소 실장 주보순동무도 있다. 방대한 량의 문헌작업과 연구방향의 모색과 탐구, 실험과 장에 무뎠고 진행된 여러차례의 시험에서 그가 3대혁명소조원들, 기술자들과 함께 지새운 밤은 그 열매였던가. 때로는 하나의

###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어

주체철용광로직장에 가면 언제나 생산돌격의 앞장에서 전투원들을 이끄는 대오의 기수가 있다. 그가 바로 로장 한영덕동무이다. 그는 모든 용해공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맡들고 견지해 해나가고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고

### 시험결과를 얻기 위해 위험한 일에 몸을 내거기도 하였다.

작업하게 얽힌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남모르게 고심하며 고결은 깊은 또 더 말미암지 우리는 여기에 더 견딜수 없다. 언제나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워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나라의 강철기둥은 더욱 굳건해지고있는것이다.

###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어

주체철용광로직장에 가면 언제나 생산돌격의 앞장에서 전투원들을 이끄는 대오의 기수가 있다. 그가 바로 로장 한영덕동무이다. 그는 모든 용해공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맡들고 견지해 해나가고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고

### 이와 함께 기술기능수준이 어린 용해공들에게 로조작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고 오랜 기간 터득한 경험들도 알려주면서 그들이 실천에서 부딪치는 모든 정황을 제힘으로 완강히 뚫고나갈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나가고도 하고있다. 이런 그를 가리켜 용해공들은 우리 로장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 이와 함께 기술기능수준이 어린 용해공들에게 로조작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고 오랜 기간 터득한 경험들도 알려주면서 그들이 실천에서 부딪치는 모든 정황을 제힘으로 완강히 뚫고나갈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나가고도 하고있다. 이런 그를 가리켜 용해공들은 우리 로장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뜻깊은 새해의 전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강철2직장 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지금 고도로 앙양되어 있다.

다시한번 경쟁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면 뛰어나뛰어내도 우리 강철전사들이 쇠물을 많이 뽑아내야 한다.

질풍은 강철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팽팽 보내주는것이 이것이 우리 직장 로동계급에게 내선 영예로운 임무이다.

### 인민생활향상의 밑뿌리가 되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설비관리에 주되는 힘을 넣겠다. 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누구나 다 설비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고 눈동자같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겠다.

우리는 강철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봉투사들이며 총공격전의 기수들이다. 인민생활향상의 밑뿌리가 되어

###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힘있게 떠받들어야 할 우리가

전신을 제대로 해야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칠수 있다.

우리는 올해에도 김철을 총공격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갈것이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것이다.

강철2직장 직장장 김은식





#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 북남관계개선은 현실의 절박한 과제

##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의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면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할 수 없다. 북남관계개선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새해 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나갈 때 대화와 협력사업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 단합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교류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서로의 리익과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필수조건이다.

조국통일위원회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60여년간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해를 다시 잇고 단합을 실현하는 전민족적위업이다.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을 떠나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대화와 협력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통일변영의 기초를 튼튼히 쌓을 수 있는 길이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은 겨레에게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시켜나가는 것은 민족의 운명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북과 남사이에는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로 말미암아 생겨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극복 못할 장애와 난관은 결코 아니다. 북과 남은 마땅히 민족공동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며 폭넓은 대화와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북남대화과 협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 그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협력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데 있다. 때문에 북남대화과 협력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그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방향이 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적화해와 나라는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올해 북남관계의 전망은 결국 이 문제에 귀착된다.

지나해에 목결을 겪으며 결렬로 이

어진 북남대화의 전과정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대화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쌍방이 민족공조를 지향하여 노력할 때에만 대화와 협력사업에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화와 협력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부터 출발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정의와 양보를 가지고 차이점을 미루고 공통점을 찾는 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북남대화과 협력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하려 폭넓은 협상과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은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누구나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북남대화과 협력사업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대량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개선을 통하여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키고 그에 활력을 불어넣자면 당국뿐 아니라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대량과 접촉, 협력이 적극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문제의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통일운동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힘과 지혜, 열정을 하나로 합쳐 북남관계가 보다 활기를 띠고 되고 그것이 온 민족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

민간단체들은 당국이 가질 수 없는 자기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세계를 둘러보아도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당국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민간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이 서로 마주앉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변영에 좋은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도 없다.

각계각층의 단체와 인사들의 자유로운 대량과 교류를 보장하는 것은 겨레의 자주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 전민족적판도에서 통일애국활동을 광범히 벌여나갈 수 있게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특색 있는 기여를 해나갈 때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실현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자주통일과 민족변영에 이바지한 것보다 더 고귀한 삶, 진정한 애국애족은 없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맞이 한 오늘 우리 민족성원들이 지닌 책임과 의무는 무겁고도 중대하다. 역사와 후대들앞에 통일변영의 년대를 아로새기는데 애국자로 남는가 아니면 그에 역행한 태도로 남는가 하는 것은 믿고 행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감으로써 북남관계의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자주통일의 전진적국면을 열어 가자라 한다.

최 철 순

새해의 조국통일전진국에 펼쳐나선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통일에 대한 사랑과 애국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조국통일의 전진적국면을 열어 나갈 의지에 넘쳐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정세가 전면전방으로 치달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신하며 그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애국열의를 꺾지 못했다. 우리 겨레는 정세가 엄중하면 할수록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더욱 억세게 펼쳐어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왔다.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한상림목사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바지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평양을 방문한 것은 그 단적 실례이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계기로 벌어진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활동은 실로 이목을 떠들었다.

남조선 각지에서 평화통일범국민대회, 사진전시회, 통일일선행진대회, 각종 통일행사의 로동자, 청년,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애족들은 연대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갔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겨레의 열의를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란다.

남조선에서는 기념토론회, 기념집회, 사진전시회, 학술토론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졌다.

행사들에서는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향을 밝힌 통일강령이라면 10.4선언은 그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실천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고 실천강령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힘있게 울려나왔다. 이와 함께 북남선언들의 리해를 위한 전국적인 투쟁으로 평화통일과 민족변영을 이룩해나갈 결의가 표명되고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진리로 확고히 새겨져 있으며 그 어떤 반통일책동으로 써도 북남선언들을 리해하여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 그들의 열망과 의지를 말아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한편 남조선의 평범한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론평들을 편이 발표하고 각종 형식의 시위와 집회투쟁을 벌였다. 단결이 조국통일을 승리의 열쇠이기때 남조선의 로동자, 청년,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애족들은 연대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갔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겨레의 열의를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란다.

조국통일의지와 신념은 더욱더 굳어져 갔다.

얼마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단결결성 20돐에 즈음하여 기념모임을 가지었다. 범민련결성 20돐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성원들과 범민련 제1본부, 유령지역본부 대표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북남공동선언에 범민련의 사상과 정신, 과업 등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선언을 고수리행해나가는 앞길에 언제나 범민련이 선장이라고 결의하였다.

남조선의 한 통일애국인사는 최근 육중에서 발표한 글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이 조국통일운동에 파각히 떨쳐나설것과 진보력량의 단결로 민족의 통일실현에 전국 이바지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서 북남선언들의 리해를 위한 강도높은 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나타내었다.

그 어떤 반통일책동도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단합된 힘으로 그 어떤 도전도 과감히 물리치며 자주통일전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갔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 차게

## 조국통일의 길은 대화와 협력에 있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애라게 부르며 투쟁해온지도 어언 60년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새 세기에 들어선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한결같이 자주와 문명을 원천하고 또 그것이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는 때에 오직 우리 조선민족만이 유일한 분열민족으로 남아 있는 것은 비극이고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조선민족의 념원으로만 되어서는 안된다.

새해공동사설에 접한 지금 우리 공방일꾼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열정으로 충만되어 있다. 아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운동을 파각히 전개하여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조국통일의 전진적국면을 열어 나갈

열의에 불타고 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그 일념, 그 의지로 올해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통일이 되는 그날 온 겨레가 열사라고 기쁨을 노래하며 타계 될 통일열차를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하여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분배와 기상이 어떤것인가를 반드시 보여 주자.

김종래기자 김관현기자김소지배인 김경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감으로써 북남관계의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자주통일의 전진적국면을 열어 가자라 한다.»

남조선에서는 새해에도 동쪽정책을 유지 하면서 대중사회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나해말 남조선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초를 «교류

협력»으로부터 «바른 통일준비»으로 바꾼 새해업무계획을 내놓았다.

이런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남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어디까지나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정사가 극도로 긴장되었으리라 정세를 냉정하게 해독후 파를 미치지 않았다.

북남사이의 대결은 우리 민족에게 그 어떤 리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북남대결상태는 하루빨리 끝났어야 하며 북남관계는 마땅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새해에도 동쪽정책을 유지 하면서 대중사회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나해말 남조선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초를 «교류

협력»으로부터 «바른 통일준비»으로 바꾼 새해업무계획을 내놓았다.

이런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남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어디까지나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정사가 극도로 긴장되었으리라 정세를 냉정하게 해독후 파를 미치지 않았다.

북남사이의 대결은 우리 민족에게 그 어떤 리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북남대결상태는 하루빨리 끝났어야 하며 북남관계는 마땅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새해에도 동쪽정책을 유지 하면서 대중사회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나해말 남조선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초를 «교류

대결하여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가 바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에 있다.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북과 남의 혈연적유대가 두터워지게 된다. 그것은 북과 남이 제도과 리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합과 통일로 나아가갈 수 있는 훌륭한 전제로 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서로의 힘을 합쳐 때 나라는 통일을 능히 이룩할 수 있는 신심과 희망도 높아지게 된다.

그 과정은 또다시 대화와 협력을 추동하여 북남관계발전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놓게 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평화와 통일의 길이 있다.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면

##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새해에 즈음하여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 접한 우리 평양과 북평간 전세 로동계급의 심장은 지금 승리에 대한 신심과 애국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애국의 승리로 고동치는 6.15 통일시대의 새 반창은 절대로 멀히세울 수 없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보니 통일강국의 미래가 환하게 안겨져 더욱 가슴이 뜨거워진다.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기만 했다.

우리 공방로동계급은 통일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끈기를 올리고있으며 증산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려 올해에 경공업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고 통일강국건설도

의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기만 했다.

우리 공방로동계급은 통일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끈기를 올리고있으며 증산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려 올해에 경공업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고 통일강국건설도

문제였다.

이것이 우리 공방로동계급의 심장에 천원암만처럼 자리잡고 있는 신념이다.

바로 이 신념이 우리모두를 새해의 총진군으로 힘있게 떠밀어 주고 있다.

우리는 공방사설에 제시된대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올해의 조국통일투쟁의 앞장서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 주자.

평양교복공장 지배인 김성도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최근년간 명천군 계급교양원 일꾼들과 장사들이 높은 책임감과 자각을 안고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자를 없애 구별하고 혁명파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 수 있다.»

계급교양원에는 미제와 일제, 제국적원수들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에 찬 역사를 고발하는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놈들의 본성을 날같이 고발하는 그 자료들은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서 원수들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당의 의도대로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계급의식을 더욱 깊이 심어줄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있는 판장 김철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장사들은 군당의 계급교양자료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갈것을 토의하였다.

그들은 해당 기관과 편계를 맺고 명천당에서 감행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 적극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원수 미제의 만행에 격분한 김치 못하며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의식을 철벽으로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계급교양사업은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다.

판에서는 계급교양거점을 잘 꾸려놓고 관부들에게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죄악에 찬 역사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계급적원수들의 만행과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만행하를 해설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명천군의 어느 한 리에는 피들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적원수들은 애국자들을 이 돌에서 무참히 때려죽이었던 것이다.

애국자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그 바위는 피들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장사들은 그 피들앞에서 승냥이가 양으로 뿔수 없듯이 아무 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미제와 제국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적분해 찬 목소리로 단죄 하였다. 장사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계급교양원일꾼들과 장사들은 늘 들리는 현장을 찾아 이동해살강의도 활활히 전개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해살강의를 노래와 시를 배합한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할것을 결심한 그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해설계장을 보충하고 기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 장사들의 이동해살강의는 처음부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새해 협동법의 포전머리에서

# 별력불가담운동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 위대한 어머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정치가, 건전한 반제투사의 빛나는 한생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역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명도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명도자는 없지 못하였습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혁명활동을 벌이시어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별력불가담운동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 투쟁의 기둥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별력불가담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수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인민을 반제투쟁의 기둥으로 하나의 단합된 혁명전선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출현하였다. 별력불가담운동은 1960년대초에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별력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는 투쟁의 사명을 높이 가여 역사적인 전진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국제혁명전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혁명력량은 크게 강화되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보다 불리

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시고 별력불가담운동이 역사무대에 출현한 첫날부터 이 운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오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54 (1965)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인도네시아대통령 수카르노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고 반동회의 10쪽 기념행사에 참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뜻깊게 상봉하시고 인도네시아의 반제투쟁적인 힘과 정책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시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독립과 자주적지향을 반영한 반동회의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방문과 행사일정을 마치고는 속에서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시어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기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고무 격려하시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별력불가담운동의 전진과 발전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 운동의 장성발전에 불안은 느낀 제국주의자들은 별력불가담운동의 전진과 강화발전을 막고 그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각방으로 악랄하게 책여왔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면 별력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 반제혁명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승고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되리라는것은 명백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제 64 (1975)년 1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별력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발간하는 잡지 《제3세계연람》에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별력불가담운동과 인류자주위업의 탁월한 명도자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여 오던 아르헨티나의 출판사일꾼들은 초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정성적으로 발간하는 월간잡지에 실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생각이 좁았다는것을 느꼈다. 출판사일꾼들은 새로 잡지 《제3세계연람》을 발간하기로 하고 그 창간호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잡지 《제3세계연람》을 창간하였으며 그 창간호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탁월하고 함께 불후의 고전적로작 《별력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전문게재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별력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 근본리념과 원칙, 운동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동 등 별력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현실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명철하게 밝히시었다. 로작은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각국은 나라 정당지도자와 사학단

체일꾼들, 각계층 인사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을 《별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추동력》, 《별력불가담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힌 동태》, 《별력불가담운동과 더불어 영구불멸할 전투적기적》 등으로 높이 찬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별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별력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화해를 건설하자》, 《별력불가담공포는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이바지하여야 한다》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별력불가담운동과 별력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나아갈 길과 주체적인 투쟁과업, 방동들을 명철하게 전진하시었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별력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별, 리간, 와해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갈때 대한 혁명적원칙과 방략을 제시하시으로써 별력불가담운동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성격과 근본리념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끊임없이 강화발전할수 있도록 하시었다.

별력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과 정치활동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이 운동의 탁월한 명도자로, 인류의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별력불가담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이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받는데서 커다란 기쁨과 영광을 얻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주의주장을 가진 외국인사들을 만나주시 때마다 그들이 제기하는 별력불가담운동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면서 별력불가담운동이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큰 기여를 하도록 하시었다.

별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별력불가담운동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고 몸소 회의들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별력불가담운동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시었다.

별력불가담운동이 장성강화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다. 맹전중심으로 국제관계와 정세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세력들은 별력불가담운동이 자기 존재의 유효성을 《상실》하였다고 떠들었다가 하던 일부 세력들은 이 운동의 근본리념을 수정하고 활동방향을 정치문제 로부터 경제문제로 돌리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제10차 별력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별력불가담운동과 관련한 질문을 서면으로 제기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스스로없이 받아들이시고 명백한 대답을 주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맹전의 중심은 조대국들의 힘의 정책의 파산임을 의미하며 별력불가담운동이 들어오는 반제투쟁의 근본리념이 아주 정당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남아있고 별력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이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운동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고,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별력불가담운동은 자기의 근본리념과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운동의 강화발전과 활동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과 방동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략에 따라 제10차 별력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별력불가담운동은 이 운동에 따라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운동의 승고하고 리념과 원칙을 고수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계속 높여나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별력불가담운동이 자주시대의 가장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리념, 원칙을 고수하며 승리적전진의 길을 걸고있는것은 이 운동력사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애고 생각할수 없다.

별력불가담운동에서 아래세기 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업적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성철

합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국제사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김정숙동지는 녀성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며 자주와 정의, 평등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녀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전범이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회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어 명사수로써의 특출한 솜씨를 보여주시었다. 김정숙동지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신 녀성혁명가이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이 항일무장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녀성으로서의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시고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경도하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시었다.

김정숙동지는 어리신 김정일동지를 혁명가로, 미래의 장군으로, 조선의 명도자로 안아 키우신 위대한 어머니이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투쟁에 녀성들을 조직동원하시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국제사상연구소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녀성혁명가의 귀감이신 김정숙동지께 경의를 표시한다.

# 로씨야, 감보자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 방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96년 합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 새해 2011년에 즈음하여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 에브링정 국무이카메리야민속 무용단 지메인 엘레나 세르바코바와 무용단의 주요성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이 나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피우니를 증명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위대한 명도자 에브링정 국무이카메리야민속 무용단 지메인 엘레나 세르바코바와 무용단의 주요성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이 나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 조직부장인 수리아아랍조국선진회 회원장 싸이 드 일리아 후다드가 지난해 12월 23일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수리아인민은 미국의 책동에 맞서싸우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할것이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의지는 어떤 무기보다 더 위력하며 그 어떤 제제나 봉쇄책도 그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다.

그는 최수원 수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식상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와 마르사드 알 아사드대통령의 리더십에 두 나라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좋게 발전하였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본사기자

# 폭압 만행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행위를 계속 강행하고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헤브론에서 쳐들어가 폭압수동에 열을 올리던 끝에 6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정찰은 한 감옥에서 팔레스타인수감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고속철도 건설 중국의 해남성에서 동부지역 룡환고속철도건설을 끝내고 지난해 12월 30일에 개통하였다. 해남시로부터 동부해안선을 따라 삼야시까지 이르는 이 고속철도의 총길이는 308km에 달한다. 이 철도는 시속 250km의 최대속도를 보장해준다.

기간에 비해 2.4배 증대되었다. 최근 이란신문 《해헤란 라인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 합 조

중국과 요르단이 지난해 12월 25일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쿠바와 우크라이나는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호상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였다.

# 인플레를 감소

스리랑카에서 지난해 평균 인플레이율이 5.9%로 감소되

# 주단수출 증대

이란에서 현 이란돈의 첫 9개월동안에 손으로 짠 주단수출액이 지난해 이란돈의 같은

# 인플레를 감소

스리랑카에서 지난해 평균 인플레이율이 5.9%로 감소되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

# 새로운 정밀거리 측정기술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최근 새로운 정밀거리측정기술을 개발하였다. 새 기술을 도입하면 수백km 떨어진 곳에서 1mm의 차이까지 정확히 측정할수 있다. 이 정밀거리측정기술은 위성 또는 행성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우주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통성변영의 현실이 펼쳐지는 사회주의조선

## 외국의 벗들이 격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대추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친 군대와 인민의 힘은 조선식 사회주의의 불멸성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세계 진보적정당들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마자르폰산주의 노동당대표단 단장 류트레드 줄라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넬손 차베스 두스 쥘루스는 방문기간 조선인민의 리상과 포부가 얼마나 원대한가를 깊이 느꼈다.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다고 말하였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 노동당 위원장 한누 하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심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장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형관, 중앙시외에 있는 타조목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참관지들마다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방글라데시주재 사상연수조사기장 셰이 크 라피르 이슬람 바블루는 조선인민의 투쟁기풍은 놀라움을 자아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에서는 놀라운 사변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통성변영의 현실이 펼쳐지는 사회주의조선은 세계 진보적인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온갖 악선전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

조선인민은 심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장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형관, 중앙시외에 있는 타조목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참관지들마다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교구를 주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국제비서

내감독을 실시하는데서 민주주의를 방양하고 단결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사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군대안의 당건설강화조치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군대당조직들에서 당내감독을 실시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은 심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장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형관, 중앙시외에 있는 타조목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참관지들마다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교구를 주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국제비서

내감독을 실시하는데서 민주주의를 방양하고 단결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사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군대안의 당건설강화조치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군대당조직들에서 당내감독을 실시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은 심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장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형관, 중앙시외에 있는 타조목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참관지들마다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교구를 주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국제비서

내감독을 실시하는데서 민주주의를 방양하고 단결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사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군대안의 당건설강화조치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군대당조직들에서 당내감독을 실시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은 심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장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형관, 중앙시외에 있는 타조목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참관지들마다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교구를 주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국제비서

내감독을 실시하는데서 민주주의를 방양하고 단결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사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군대안의 당건설강화조치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군대당조직들에서 당내감독을 실시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은 심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장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형관, 중앙시외에 있는 타조목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참관지들마다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교구를 주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국제비서

내감독을 실시하는데서 민주주의를 방양하고 단결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사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